

1. 천도교의 창도와 유래

천도교는 포덕(布德) 원년 (단기4193, 서기1860, 경신) 4월 5일 우리나라 경주 용담(龍潭)에서 수운대신사 최제우(水雲大神師崔濟愚)선생의 득도(得道)에 의하여 창도된 새 종교이다.

초기에는 동학(東學)이라고 하다가 포덕 46(1905)년 12월 1일 의암성사 손병희(義菴聖師 孫秉熙)선생에 의해 천도교(天道敎)로 대고천하(大告天下)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는 온 누리에 한울님의 덕을 퍼서 널리 창생을 건지어 보국안민하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창도되었다. 낡은 선천(先天)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後天)시대의 새 문화, 새 역사를 열어 나가는 개벽(開闢)운수를 맞이하여 천도교가 창명된 것이다.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정신적 토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천신(天神)숭배 신앙과 함께 단군의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을 이루어 왔고 유불선(儒佛仙) 삼교를 포용한 풍류도(風流道)라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갖고 동방문화의 원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삼국시대에 이르러 유교, 불교, 선교 등의 종교가 대륙으로부터 들어와 우리사회에 퍼지면서 재래의 소박한 민족 신앙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 신앙의 뿌리는 민중 속에 자리 잡고 외래문화를 극복하여 한국화하는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신라, 고려에 걸쳐 불교 전성기를 나타내고 다시 조선 시대에는 유교의 전성기를 이루어 왔으나 우리의 민족 문화는 외래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민족 자주성을 살려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조 말기에 유교가 쇠퇴하고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여 민생이 도탄에서 헤매게 될 때 서양으로부터 물질문명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편으로 서구열강의 동양침략으로 민심이 매우 불안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감록” 등의 참서를 믿는가 하면 십승지지(十勝之地)를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천주교로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퍼지면서 도적 떼가 날뛰고 민란이 일어나는 등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미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성종교는 민심을 향도할만한 힘이 없었으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화교체의 대전환을 요청하게 되었고 새 종교가 나와야 할 필연성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마침내 수운대신사(최제우)께서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시며 제세안민(濟世安民)의 대도(大道)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종교사상을 연구하고 주유천하 하시면서 인심풍속을 살피고 49일기도를 봉행하는 등 오랜 구도고행(求道苦行)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경신(庚申; 1860)년 4월 5일 한울님의 계시로 무극대도(無極大道), 동학(東學)을 창건하게 된 것이다.

대신사는 「도(道)는 천도(天道)요 학은 동학(東學)」이라 했다. 그리고 동학은 「옛날에도 듣지 못하고 오늘에도 듣지 못하고 옛날에도 비할 수 없고 오늘에도 비할 수 없는 새로운 진리」라고 말했다. 대신사는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의 새로운 신앙과 사람이 곧 한울이요 사람을 한울같이 섬겨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진리를 설법하면서 포덕(布德)을 하는 한편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를 직접 저술했는데 이것이 동학, 천도교의 기본 경전이다. 대신사는 관(官)의 지목(指目)이 심해지자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포덕 4년 8월 14일 해월신사 최경상(海月神師, 崔慶翔, 후에 時亨 으로 고침)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였다.

동학의 교세가 점차 확산되어 가자 조정에서 동학을 이단(異端)으로 몰아 대신사는 41세 때인 포덕 5(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좌도난정율(左道亂正律)로 참형을 당해 순도하시었다.

그 후 동학은 제2세 교조 해월신사의 지도 밑에 지하 포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해월신사는 대도창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36년간 강원도 태백산, 소백산, 일월산 등 산간벽지로 쫓겨 다니면서 특히 영해교조신원운동(포덕 12년)으로 더욱 무서운 지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나무를 심고 명석을 내고 짚신을 삼고 노끈을 꼬시는 등 일용행사에 도를 체행(體行)하시면서 포덕교화를 계속했다. 또한 수차에 걸쳐 경전을 목판으로 간행하여 동학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해월신사 말기에는 교세가 전국적으로 퍼져 무려 수십만의 교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드디어 포덕 33(1892)년 11월에는 전주 삼례역에 수천 명의 교도가 모여 대신사의 억울한 죽음의 누명을 풀어줄 것과 동학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이른바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을 일으켰다.

그 다음해 포덕 34(1893)년 2월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수천 명이 복합 상소 운동을 일으켰고 이어 3월에는 보은에 무려 2만여 명이 모여 20여 일간이나 척양척왜(斥洋斥倭),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 높이 들고 대대적인 신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조 당국은 동학의 요구를 묵살한 채 더욱 심하게 박해를 가하는 한편 농민에 대한 수탈행위가 더욱 심해지자 드디어 포덕 35(1894)년에는 갑오동학혁명(甲午東學革命)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다.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은 옥일승천의 기세로 삼남 일대를 석권하고 전주성을 점령, 53개 군현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민정을 실시함으로써 실로 근대적인 민주화운동의 효시를 이루었다.

전주화약을 맺고 일단 해산하였던 동학군은 일본군의 침입으로 9월에 다시 기포(起包)하여 일본군과 처절한 전투 끝에 무려 30만의 희생을 내고 좌절되고 말았다. 해월신사는 포덕 38년 12월 24일 의암성사 손병희(義菴聖師 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한 후 관현에 체포되어 포덕 39년 6월 2일 경성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도(殉道)하시었다. 이로부터 동학은 제3세 교조(敎祖) 의암성사 지도 밑에 교단을 정비 확장해 나아가게 되었다.

동학혁명 후 일본에 망명했던 의암성사는 포덕 45(1904)년에 열강의 각축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갑진 개화혁신운동(甲辰開化革新運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패하자 의암성사는 포덕 46(1905)년 12월 1일 동학(東學)을 천도교(天道敎)로 대고천하(大告天下)하는 한편 이듬해 1월 일본으로부터 귀국, 천도교중앙총부를 서울에 설치하고 천도교 대헌(大憲)을 반포하여 근대적 종교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 후 의암성사는 포덕 49(1908)년 1월 18일 춘암상사 박인호(春菴上師 朴寅浩)에게 대도주(大道主)의 종통을 전수하고 소위 경술국치이후 10여 년 동안 교역자 양성과 교세확장,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구국운동의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천도교는 포덕 60(1919)년 기미 3·1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개 종단의 연합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으나 천도교가 기금을 전담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의암성사는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으로 풀려 나와 포덕 63(1922)년 5월 19일에 순도하시었다.

천도교는 3·1운동으로 인한 엄청난 타격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청년운동,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상민운동, 노동운동 등 7개 부문운동을 통하여 신문화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계몽에 앞장섰다. 또 한편 오심당(吾心黨)사건과 춘암상사의 지도로 일어난 무인멸왜(戊寅滅倭)기도 등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했다.

2차 대전 종결과 함께 8·15 광복이 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국토분단으로 북한에는 천도교 북조선 총무원이 따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활동하던 청우당(靑友黨)을 부활시켜 무려 280여만 교도를 확보하여 포덕 89(1948)년에 민족분열(남북분단)저지운동인 3·1재현운동, 포덕 91년의 영우회(靈友會)운동 등 민족자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다가 많은 교인들이 희생된 바 있고 6·25동란시 수십만 교인이 월남하게 되었다. 또한 남쪽에서는 민족자주정신을 외치다가 청우당은 해체되고 월북하는 교역자들도 있었다.

이제 천도교는 동학혁명 100주년과 현도 100주년을 뜻있게 보내고 또한 포덕 150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신환성, 정신개벽 수련운동과 인내천 사상 선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포덕천하·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 건설의 거룩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다.

※ 한마디로 천도교는 우리 민족의 피요 뼈요 살이요 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도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 최근세사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